



인공지능이 쓰는 소설은 가능한가?

문학잡지 최초!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문학적 성찰, 특집으로 다뤄

썸-문학의 이름으로 제8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476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인공지능의 도래, 문화의 미래” 문학잡지 최초로 심도 깊은 특집으로 다뤄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8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한국 문학잡지 최초로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와 문학 현상’을 심도 깊게 다룬, 흥미로운 특집이 실렸다.

특집 : 인공지능의 도래, 문화의 미래

1. 인공지능의 존재론_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존재를 사유하기 | **천현득 (서울대 철학과 교수)**
2. 인공지능의 현재와 자율적·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전망 |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3.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인간-기계의 공존 | **신상규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교수)**
4. 인공지능과 문화 | **백육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5. 디지털 님프 소고_미지를 초월하는 완벽한 미적 비-지의 블랙박스는 가능한가 | **윤경희 (문학평론가)**
6. 문학작품을 쓰는 인공지능_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선정우 (코믹팍 대표-만화평론가)**
7. 트랜스휴먼의 풍경들_현대 영지주의 과학소설 일람기 | **복도훈 (문학평론가)**

특집에 덧붙여 : 현장의 목소리 : 포스트휴먼 시대의 문학

1. ‘인공지능-기계-동물’과 마주한 ‘자연적-인간적-경험적 자아’의 입장 | **김대산 (문학평론가)**
2.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 **김민우 (시인)**
3. 새로운 영혼의, 헛소리 | **듀나 (SF작가-영화평론가)**
4. 볼 때마다 또 놀라는 인공지능 이야기 | **배명훈 (소설가)**
5. 헬멧을 쓴다 | **신해욱 (시인)**

이번 호 특집은 인공지능과 문화 현장 연구에 정통한 과학철학자들의 글과 문학평론가 두 분의 흥미로운 분석, 그리고 듀나와 배명훈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들의 관련 에세이까지,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현상과 미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번 특집을 ‘인공지능의 도래, 문화의 미래’로 기획한 이유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적 기계와 인간으로 대표되는 지능적 유기체 사이의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어쩌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구별 불가능할 정도로 닮을 수 있다는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기계와 자신을 구별하기 어려워하거나 싫어할 정도로 그것을 이미 닮아 있다는 현재적 사실성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인공지능-기계는 유인원을 포함한 지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더 인간을 닮은 존재처럼 보인다. 그것은 마치 ‘제2의 인간’이나 ‘인간의 분신(그림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분신이 인간처럼 보이는 비-인간일 수 있듯이, 그것은 인간을 가장 닮지 않은 ‘비-인간적 기계-동물’처럼도 보인다. 가장 닮을 수 있으면서도 가장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번 특집에 실린 다양한 필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들은 우리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_ 편집후기 중에서

실험적인 시, 소설은 물론, 희곡과 텍스트 실험 공간 등 주목할 만한 작품 실려

김경후, 김소연, 김중연, 임승유 시인의 신작 시와 김덕희, 김봉곤, 염승숙 소설가의 신작 단편, 그리고 희곡작가 천정환 씨의 신작 희곡이 실린 창작란은 문학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 줄 것이며, 정지돈 소설가가 엮은 <텍스트 실험 공간> 쪽지에선 7인의 젊은 문필가들의 독특하고 참신한 글쓰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읽을거리가 풍부한 정통 문학잡지 면면

작은 기획_포스트모더니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그때 그 실험_박상룡 다시 읽기 / 지금 이 언어_김숨 연작 소설 연구 등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문제적인 비평문들을 접할 수 있는 바, 일반 독자는 물론 문화-문학 연구자들과 젊은 문학도들에게 더 없이 유익한 선물이 될 것이다.

차례

특집 : 인공지능의 도래, 문화의 미래

인공지능의 존재론_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존재를 사유하기 | 천현득
인공지능의 현재와 자율적·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전망 | 이종원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인간-기계의 공존 | 신상규
인공지능과 문화 | 백옥인
디지털 님프 소고_미지를 초월하는 완벽한 미적 비-지의 블랙박스는 가능한가 | 윤경희
문학작품을 쓰는 인공지능_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선정우
트랜스휴먼의 풍경들_현대 영지주의 과학소설 일람기 | 복도훈

특집에 덧붙여 : 현장의 목소리: 포스트휴먼 시대의 문학

'인공지능-기계-동물'과 마주한
'자연적-인간적-경험적 자아'의 입장 | 김대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 김민우
새로운 영혼의, 헛소리 | 듀나
불 때마다 또 놀라는 인공지능 이야기 | 배명훈
헬멧을 쓴다 | 신해욱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절뚝거리는 골목 외 2편 | 김경후
식은 별 | 김덕희
일산日傘 아래 | 김봉근
이 느린 물 외 2편 | 김소연
밴더스내치 외 2편 | 김종연
거의 모든 것의 류 | 염승숙
시민 외 2편 | 임승유
백야 | 천정완

텍스트 실험 공간

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플롯 | 정지돈 엮음 (이랑·박솔미·문보영·박민정·민병훈·나일선)

그때 그 실험

죽음은 어떻게 완성되는가_다시, 『죽음의 한 연구』를 읽으며 | 김진수

지금 이 언어

다시 문학의 실효성에 관하여_김숨 연작 소설, 『한 명』 『흐르는 편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읽기 | 조강석

작은 기획

포스트모더니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_ 포스트모더니즘의 죽음에 관한 두 해석 | 김태환
다시 포스트모더니즘을 찾아서 | 김형중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디지털 가상성 미학으로 | 정현

지난호 특집 보론

김현, 이론과 비평, 그리고 수용 (2)_'프랑스 근/현대 비평사'를 중심으로 | 조재룡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골똘히 바라보는 눈의 이야기_ 이항 시집 『침묵이 침묵에게』 | 김나영

이번 호 필자

김경후 | 시인.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그날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 『열두 겹의 자정』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어느 새벽, 나는 리어왕이었지』를 펴냈다.

김나영 | 문학평론가. 198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하였고,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덕희 | 소설가. 1979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급소』를 펴냈다.

김민우 | 시인.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2015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다.

김봉곤 | 소설가. 1985년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와 동 대학원 서사창작과를 졸업했다.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여름, 스피드』를 펴냈다.

김소연 | 시인. 1967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가톨릭대학교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현대시사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에게』를 펴냈다.

김종연 | 시인. 199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1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다.

김진수 | 문학평론가. 1962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사랑, 그 불가능한 죽음』 『오직 시인일 뿐 그저 바보일 뿐』 등 4권의 평론집과 문학 이론서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역서 『미학사전』 등을 펴냈다.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태환 | 문학평론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문학과 및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푸른 장미를 찾아서』와 문학 이론서 『문학의 질서』 『미로의 구조』를 펴냈고 다수의 독일 문학서·철학서를 번역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형중 | 문학평론가.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켄타우로스의 비평』 『후르비네크의 허』 등 5권의 평론집과 산문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를 펴냈다. 현재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일선 | 소설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소설집 『우리는 우리가 읽는 만큼 기억될 것이다』를 펴냈다.

듀나 | 소설가·영화평론가. 『나비전쟁』 『태평양 횡단특급』 등 4권의 소설집과 『대리전』 『민트의 세계』 등 5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스크린 앞에서 투덜대기』 『가능한 꿈의 공간들』 등의 영화평론집을 펴냈다.

문보영 | 시인. 1992년 제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책기둥』을 펴냈다.

민병훈 | 소설가. 1986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수료했다. 2015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했다.

박민정 | 소설가.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 문화연구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유령이 신체를 얻을 때』 『아내들의 학교』와 장편소설 『미스 플라이트』를 펴냈다.

박솔미 | 소설가. 1985년 광주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를 졸업했다. 2009년 『자음과모음』을 통해 등단하여, 『그럼 무얼 부르지』 『겨울의 눈빛』 등 3권의 소설집과 『을』 『머리부터 천천히』 등 5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배명훈 | 소설가.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타워』 『안녕, 인공지능!』 『예술과 중력가속도』와 장편소설 『첫숨』 『고고심령학자』를 펴냈다.

백옥인 | 사회학자. 1957년에 태어나,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사회운동론』 『정보자본주의』 『디지털 데이터·정보·지식』 『인터넷 빨간책』 『변안사회』 등의 저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도훈 | 문학평론가. 1973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눈먼 자의 초상』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등 4권의 평론집을 펴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선정우 | 만화칼럼니스트. 1974년에 태어났다. 1995년부터 국내 매체에, 2002년부터는 일본 매체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다. 200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일본관 <OTAKU: 인격=공간=도시> 전에 전시작품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표했으며, 대담집 『오스카 에이지: 순문학의 죽음·오타쿠·스토리텔링을 말한다』와 『스토리 메이커』 『이야기론으로 읽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미야자키 하야오』 『증비 사회학』 『웹소설의 충격』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출판기획사 코믹팝 대표로 재직 중이다.

신상규 | 철학자. 1963년에 태어나,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푸른 요정을 찾아서: 인공지능과 미래 인간의 조건』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등의 저서와 『내추럴 본 사이보그』 『커넥트, 뇌의 지도』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사피엔스』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해욱 | 시인. 197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간결한 배치』 『생물성』 『syzygy』와 산문집 『비성년열전』 『일인용 책』을 펴냈다.

염승숙 | 소설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 『현대문학』을 통해 소설로, 201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평론으로 등단하여, 소설집 『채플린, 채플린』 『노웨어 맨 그리고 남겨진 것들』과 장편소설 『어떤 나라는 너무 크다』 『여기에 없도록 하자』를 펴냈다.

윤경희 | 문학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 비교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랑 | 뮤지션·영화감독·만화가.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정규 음반 <윤은손> <신의 놀이>와 『이랑 네 컷 만화』 『내가 30대가 됐다』 『대체 뭐하자는 인간이지 싶었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이중원 | 과학철학자. 1959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과에서 과학철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문학으로 과학 읽기』 『서양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점』 『과학으로 생각한다』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의 존재론』 『정보혁명』 『인문의 길, 인간의 길』 『양자·정보·생명』 등의 저서를 펴냈다.

임승유 | 소설가. 1973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나,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2011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 봐』 『그 밖의 어떤 것』을 펴냈다.

정지돈 | 소설가. 198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2013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내가 싸우듯이』와 장편소설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를 펴냈다.

정현 | 영화평론가. 196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에서 영상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화 역사와 미학』 『영화 기술 역사』 등의 저서와 『필름 크래프트 촬영감독』 『큐브릭·그로테스크의 미학』 『디지털 영화 미학』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강석 | 문학평론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등 3권의 평론집과 한국문학 연구서 『비화해적 가상의 두 양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재룡 | 문학평론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비평』을 통해 등단하여, 『번역의 유형들』 등 3권의 평론집과 프랑스 문학 연구서 『앙리 메쇼닉과 현대 비평』 및 다수의 프랑스 문학 관련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정완 | 극작가·소설가. 1981년 경상북도 문경에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를 졸업했다. 2007년 '신작 희곡 페스티벌'을 통해 희곡으로, 2011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소설로 등단했다.

천현득 | 과학철학자. 1977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과학철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인공지능의 존재론』 등의 공저와 『실험철학』 『역학의 철학』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